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오재영 제노, 이혜경 소화데레사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조은영 베다, 황성필 세례자 요한	봉헌금: \$ 174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교무금: \$0
다음 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기타 & 매일 미사책: \$ 5
금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합계 : \$ 179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세례자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9 월 20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장소, 시간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9 월 14 일 토요일 저녁 7 시, 사제관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장소,시간 :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의 묵상	
새장에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오랜 기간 그 안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새장의 문을 열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를 놓아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새장 문이 열리자 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까지 날갯짓을 해 보지 않았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자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모이나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장은 이미 열렸으나 그 새는 좀처럼 나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처럼 새장 안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이러한 새장 속의 새인지도 모릅니다. 열등감, 죄의식, 상처, 분노, 죽음에 대한 공포 등 각자 자신만의 새장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장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새장 속의 새처럼 문이 열려 있음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날갯짓을 포기하고, 새장에 갇힌 채 재산, 명예, 쾌락, 분주함 등의 ‘모이’나 먹으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새장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이’를 과감히 포기하고 날갯짓을 연습해야 합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연중 제 23주일

<제 1 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9 ㄴ-10.12-17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풀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해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탐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알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알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423 봉헌: 501 성체: 502 파견: 286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2013년 9월 07일



올바른 기도 생활

우리 삶이란 안정된 것이라곤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도 어느 하나 안정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그럴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평화나 위안을 맛보며 깨달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먹구름 속에 갇혀 있گی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고속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기도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기도생활을 잘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하느님께 청원기도를 드렸는데, 그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면 더더욱 기도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시점에,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장소에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하느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초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론은 하느님이야말로 알 수 없는 분이사라는 ‘불가지성’(不可知性)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는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지혜 9,13)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 2 독서에서 필레몬의 집을 도망친 하인 오네시모를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당부를 전합니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필레 8-9)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당시 만연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도 않았고, 사도의 권위로 필레몬에게 교인이 된 오네시모를 선처하라고 강권하지도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애덕(愛德) 실천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루카 11,1-4 참조). 혹시 여러분은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의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나의 뜻과는 사뭇 다른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이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 공지사항

- 가을 야유회 및 추석미사가 9월 22일 일요일 Elver Park 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11시 미사 후 공동체 식사와 야유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야외미사 일정으로 21일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9월 정기 사목회의가 14일 미사 후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안건은 추석 미사 준비와 성당 웹사이트 런칭입니다.
- 지난주에 law firm 에 다니시는 강우민 글라라 자매님과 Audiology 전공이신 설혜윤 헬레나 자매님께서 성당에 새로 오셨습니다. 많은 환영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매달 첫 토요일은 교우금을 내시는 주입니다. 교우금 납부 약정을 비롯한 문의는 회계담당 사목위원이신 황성필 세례자 요한 형제님께 부탁드립니다.
- 꾸르실로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이영숙(카타리나), 한영주(리드비나), 전은숙(글라라)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